



보험연구원  
Korea Insurance  
Research Institute

# 보 도 자 료

보도

2018. 11. 30(금) 14:00부터

배포

2018. 11. 29(목)

책임자

금융정책실  
김해식 실장(3775-9041)

작성자

김해식 연구위원(3775-9041)

홍보담당

최원 선임연구원(3775-9057)

총 6매

## 보험연구원, 「Solvency II가 유럽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」 국제심포지엄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 한기정)은 11월 30일(금)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「Solvency II가 유럽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」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
- 이번 심포지엄은 K-ICS의 벤치마크에 해당하는 Solvency II와 유럽 보험시장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,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함
- 보험연구원 김해식 실장은 제1주제 『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 변화』 발표를 통해 Solvency II의 등장 배경과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의 변화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였음
-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은 제2주제 『Solvency II 관련 주요 쟁점』 발표를 통해 Solvency II 도입 논의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하였음
- MSCI의 Thomas Moser Executive Director는 제3주제 『Solvency II가 자산운용업에 주는 시사점』 발표를 통해 Solvency II에서 요구하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데이터와 분석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

- Societe Generale의 Rötger Franz Director은 제4주제 『Solvency II 하에서의 자본관리』 발표를 통해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회사의 자본관리를 비교하고, AXA의 XL 인수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음
-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K-ICS 도입과 관련한 향후 정책방향과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음
- 패널 토론에서는 한양대 오창수 교수(좌장)와 발표자, DB손해보험 고인철 상무, 숭실대학교 김범 교수, 금융감독원 박종수 실장, 교보생명보험 신상만 전무가 참여하여 발표 주제들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지속하였음

## 〈주제발표 1 :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 변화〉

보험연구원 김해식 실장

### 저금리에 대응한 Solvency II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

- 유럽연합은 198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영향에 대응하면서 통합 보험 시장의 시장경쟁을 촉진할 공통기준으로서 Solvency II 도입을 추진함
  - 1994년 유럽연합은 자유로운 보험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상품 및 가격에 대한 감독개입을 금지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함
  - 지속되는 저금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가회계에 기초한 지급여력평가기준을 마련하는 Solvency II 작업을 추진함
  
- [저금리와 Solvency II 제도 연착륙] 유럽연합은 보험회사 자본변동성을 줄이고 시장 안정을 높이는 다양한 보완조치를 Solvency II 시행안에 포함함
  - 유럽의 보험회사는 투자형상품과 장기채권투자의 상품 및 자산구성 변화로 저금리에 대응해왔으나, 누적된 저금리 영향으로 금리위험에 크게 노출되면서 시가평가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임
  - 유럽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자본변동성을 줄이고 Solvency II의 경기순응성을 높이는 다양한 보완조치를 Solvency II에 반영함
  
- [Solvency II 시사점] 유럽보험시장의 Solvency II는 시장경쟁의 인프라이자 수십 년간 누적된 저금리 영향에 장기적,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지급여력제도임
  - 2000년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시장경쟁에 개선 여지가 많은 국내 보험시장에 Solvency II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

## 〈주제발표 2 : Solvency II 관련 주요 쟁점〉

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

### Solvency II 도입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참고할 필요

-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Solvency II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6년에 시행됨
  - Solvency II 도입 논의과정은 크게 ① 제도 도입 필요성, ②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, ③ 제도 시행 이후 검토로 나눌 수 있음
- [신제도 도입 필요성] 보험회사가 직면한 위험과 현행 제도 등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고, 3축 체계(3-pillar)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 II의 전반적인 틀이 완성됨
- [구체적인 제도 설계] 신제도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 대해 수차례의 계량영향평가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
 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Solvency II의 수용가능성과 경기순응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경과조치 등 다양한 추가조치를 도입함
- [제도 시행 이후 검토] 정책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,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, Solvency II 시행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제·개정할 예정임
- 향후 국내 보험회사에 새롭게 적용될 지급여력제도인 K-ICS가 EU의 Solvency II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졌다는 점에서 Solvency II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함

### 〈주제발표 3 : Solvency II가 자산운용업에 주는 시사점〉

MSCI Thomas Moser Executive Director

#### 신제도에서 요구하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데이터와 분석의 개선이 필요

- 보험회사는 주요 기관투자자일뿐만 아니라 시장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Solvency II는 자산운용업에 많은 영향을 끼침
  -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약 30조 달러로 글로벌 상장 기관투자자의 약 30%를 차지함
  - 보통 시장위험은 보험회사 요구자본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: 2017년 기준 AXA 44%, Allianz 41%, Legal and General 48% 등
  
- Solvency II 도입으로 인해 유럽 보험회사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데이터와 분석 측면에서의 개선임
  -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여 요구자본 산출, 내부위험관리 등에 활용해야 함
  
- Solvency II는 투명성을 강조하는 제도로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기구의 위험 측정 시 편입자산분해(Look-through) 방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줌
  - 편입자산분해는 보험회사가 직접 수행하거나, 자산운용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
  
- 유럽 보험회사의 Solvency II 보고의 상당 부분은 자산운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자산운용회사들도 Solvency II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와 분석의 개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

## 〈주제발표 4 : Solvency II 하에서의 자본관리〉

Societe Generale Rötger Franz Director

### 유럽 보험회사, Solvency II를 기반으로 자본관리를 수행

- Solvency II 시행 이후 대부분의 유럽 보험회사는 경과조치 등을 적용하지 않는 Solvency II를 기반으로 자본관리를 수행함
  - 경과조치는 대형 보험회사 중 영국 생명보험회사들이 주로 활용함
  - 일반적으로 목표로 하는 지급여력비율은 160% 이상이고, 최저 수준은 140%임
  
-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험은 금리위험으로, 이를 관리하기 위해 유럽보험회사들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보유계약(Back book)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수행함
  - Back book 판매: Generali Leben, Generali Belgium 등
  - 시장 철수: Prudential, Standard Life Aberdeen(UK 생명보험시장), L&G(유럽 보험시장)
  
- Solvency II 이전에는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 활동이 활발하였으나, Solvency II 시행 이후 새로운 자본 확충 활동은 누그러짐
  - 가용자본 구성을 살펴보면, Tier 2 비율이 높음
  
- 구체적인 자본관리 사례로 AXA의 XL 인수를 소개함
  - AXA는 XL 인수를 통해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지만, 장기적으로 위험분산을 통한 위험프로파일(Risk Profile)을 개선시킴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